

월간 내일

THINK UP!

같이 생각해봐요!

당신도 N잡러?



음악계 대표 N잡러 하림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당신의 직업은
몇 개입니까?

내일로 붙업

시대와 변화를 읽는 현명한 혁신 기업
(주)이너스커뮤니티

날마다 레벨업

알파벳을 보면 세대가 보인다는데
"나는 무슨 세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가로 반짝이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5월의 햇살이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따사롭게 비추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심포가 되어 줍니다.

잠깐 멈추고
가족과 주위 소중한 분들께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내일

고용노동부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요즘 N잡러가 대세라고?!!
- 10 **트렌드 인사이드**
당신의 직업은 몇 개입니까?
- 16 **알아두자고용**
초보 N잡러를 위한 꿀팁!
- 18 **내일이 만난 사람**
“N잡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기획하는 사람이지요”
-뮤지션 하림
- 24 **정책모음.ZIP**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N잡생활





Chapter 2 내일로 붙임!

34 뉴 스타트

끝없는 자기계발로 연마하는 단단한 인생
-이용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
취업컨설턴트

38 청년꿈터

청년이 꾸는 청년다운 꿈
오늘 그리고 내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재욱 씨

42 굿&굿 오피스

시대와 변화를 읽는 현명한 혁신 기업
-(주)이너스커뮤니티

46 더불어 세상

MZ세대가 꿈꾸는 사회적 기업의 청사진
-마인즈그라운드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68 디지털휴면

현금 자리 대신할 디지털화폐의 시대

70 하이파이프

알파벳을 보면 세대가 보인다는데...
“나는 무슨 세대지?”

72 주말에 뭐 할래?

5월에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문화 나들이

76 플레이리스트

사랑에 빠진 나, 너에게 ‘러브송’

78 그런 리추얼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제 그만!
함께 실천해요! 용기내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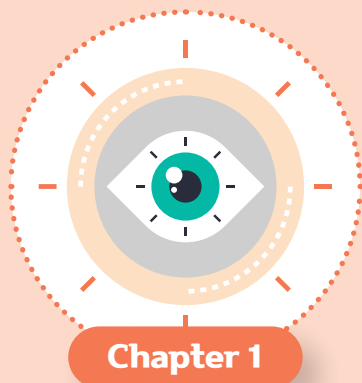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4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트 렌 드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당신도 N잡러?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잡(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만나 만들어진 말, N잡러.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사람을 N잡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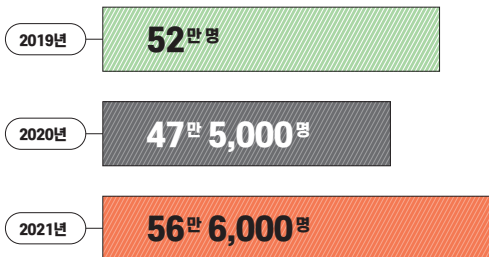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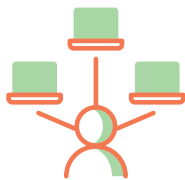
요즘과 같은 ‘N잡러 열풍’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요즘 N잡러가 대세라고?!!

‘한우물’ 파는 것만을 미덕으로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N잡 라이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콘텐츠 일부에는 <월간내일> 독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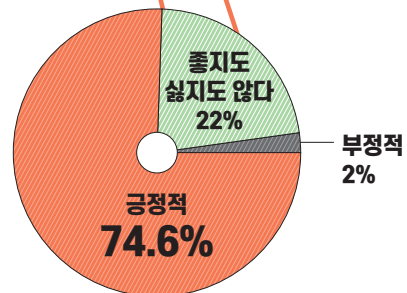
본업 외 부업 병행, 역대 최고!



<본업 외의 일을 하는 부업자 수>

자료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2021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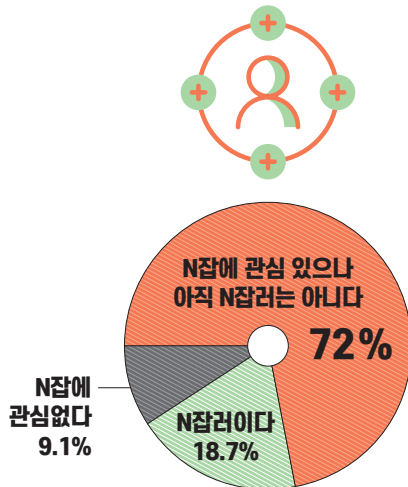
N잡, 대체로 호감!



<N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출처: 월간내일 설문조사(2022. 4. 11~15.) / 460명 참여

기회되면 해보고 싶다, N잡!



<당신은 N잡러입니까?>

자료출처: 월간내일 설문조사(2022. 4. 11~15.) / 460명 참여

반드시 돈 때문만은 아니야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 **58.7%**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17.6%**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4.1%**

고용불안감 혹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8.5%**

기타 **11.1%**

<N잡을 하는 이유 혹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료출처: 월간내일 설문조사(2022. 4. 11~15.) / 460명 참여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유튜브, 작가 등 크리에이터 **75.9%**

블로그마켓 등 온·오프라인쇼핑몰 **72.2%**

배달라이더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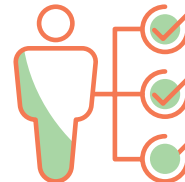
요식업 **21.3%**

기타 **8.3%**

<선호하는 N잡의 종류는?>

자료출처: 월간내일 설문조사(2022. 4. 11~15.) / 460명 참여(중복응답)

직장인 89.7% “N잡러,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정년 없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26.4%**

23.8%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20.8% 취업경기 침체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13.8%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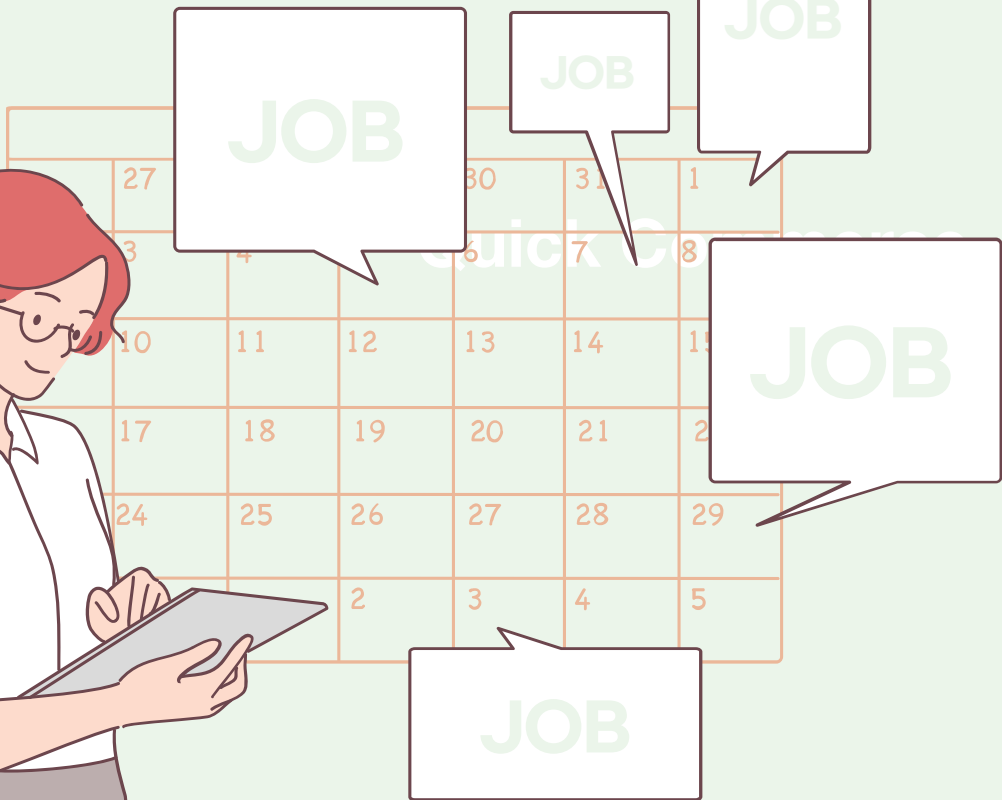
7.8% 정시퇴근자가 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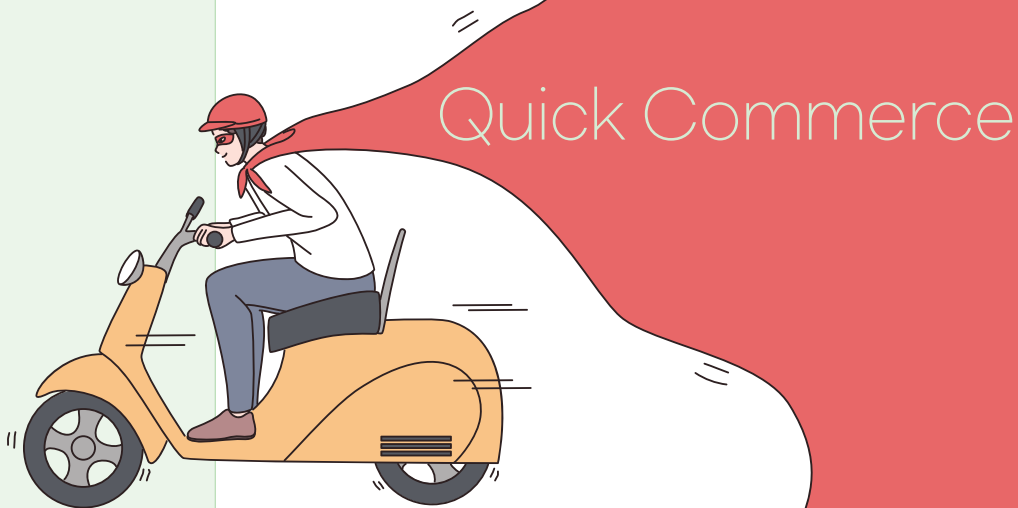
<N잡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

자료출처: 잡코리아 / 직장인 1,600명 참여

당신의 직업은 몇 개입니까?

투잡을 넘어 쓰리잡, 포잡, 파이프잡... 여러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N잡러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걸까요? 서핑하듯 유연하게 시대의 흐름을 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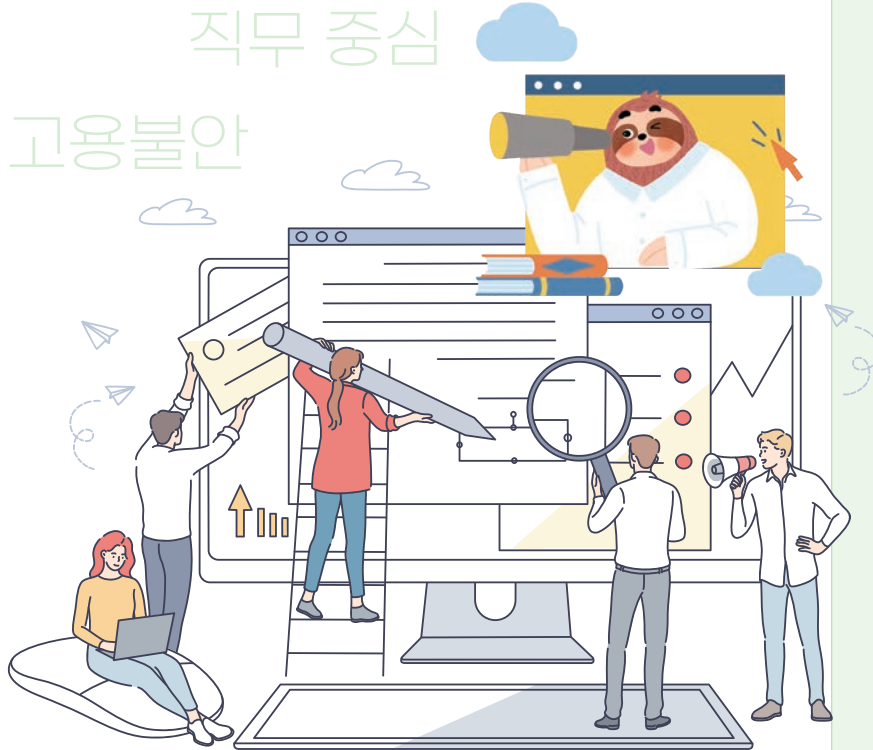


프리랜서 아니고 N잡러

직장에서 퇴근한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업’을 특별히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N잡러’라고 부릅니다. 몇 해 전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N잡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지요.

N잡러는 ‘소속되지 않고 활동한다’는 개념의 프리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일(N잡)’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여가 시간에 배달라이더로 부업을 하고 주말에는 유튜브로 활동한다거나, 편의점·음식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러 가지 알바를 병행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MZ세대 5명 중 1명은 N잡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N잡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특정 나이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N잡러가 흔해진 요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발달로 더욱 다채롭고 세분화되어 가는 시대의 특성상, N잡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잡러 열풍, 대체 왜?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며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N잡러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N잡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졌거든요.

고용의 트렌드가 '직무 중심'으로 변화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전문화되면서 '특정 직무' 자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조직에 소속되지 않아도 '능력'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산업의 성장으로 배달라이더,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그래서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 변화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일하느냐'에 연연하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캐릭터'라는 의미로, 본업(혹은 직장)은 '본캐(본 캐릭터)', N잡은 부캐(부 캐릭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돈 때문만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물리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N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수익’ 때문입니다.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을 ‘N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위해 N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즐기면서 일하고 싶어서, 본업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회사가 아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등 이유는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와 취향을 특히 중요시하는 MZ세대가 ‘N잡 트렌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아실현 나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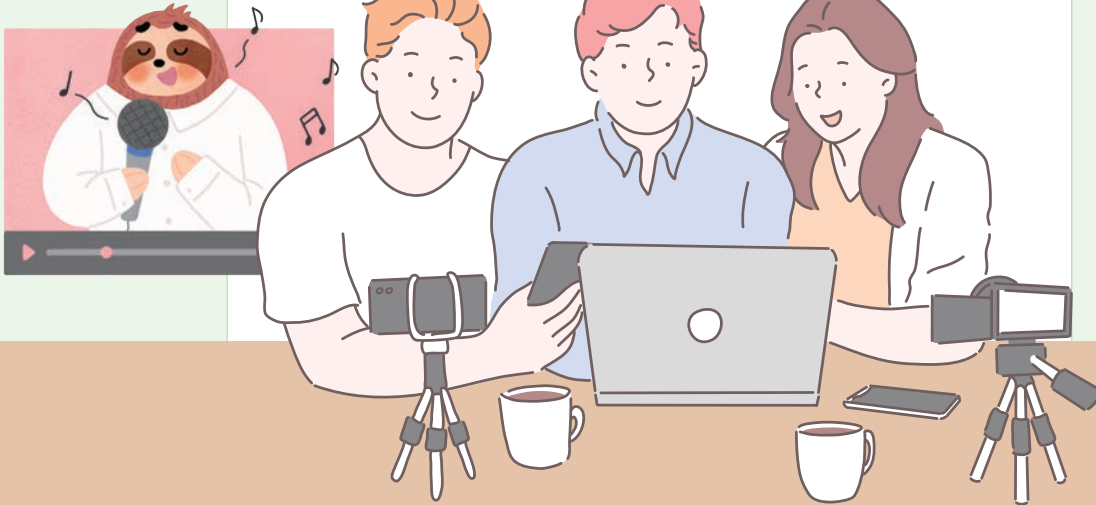


앞으로 어떤 N잡이 될까?

<월간내일> 독자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7%가 이미 N잡러로 활동하고 있었고 72%가 “N잡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N잡은 ‘유튜버, 작가’ 등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데다가,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 창업과 부업의 대명사인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달라이더’가 3위로 뒤따랐습니다.

크몽, 탈잉, 숨고, 클래스101 등으로 대표되는 ‘재능거래 플랫폼’도 N잡러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프랑스자수, 댄스, 스피치, 운동, 카운슬링 등 자신만의 차별화된 재능과 노하우가 있다면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각 플랫폼마다 주된 분야가 다르니, 재능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보고 싶다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입해 보길 추천합니다.

콘 텐 츠 크 리 에 이 터



재 능 거 래 플 랫 폼

SIDE PROJECT



N잡이 부담스럽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많은 사람들이 N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유지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회사 생활과 병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Side Project)란, 본업 외에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일을 취미처럼 시도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에겐 온라인 플랫폼 글쓰기가,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픈 이에게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겠죠. 지금 당장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재미’와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며 실력을 늘려가는 것이 포인트! 그러면서 즐거운 여가생활도 만끽하고 새로운 N잡을 발굴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고는 싶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만의 취향과 재능을 먼저 탐색해 보세요. 본업과 연관된 분야의 학원이나 스튜디오로 자기계발을 하며 관심을 확장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보 N잡러를 위한 꿀팁!



회사에서 안다면 문제가 될까?

N잡러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알려도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겁니다. 일단 근로 기준법에는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종종 있습니다.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집중도가 하락하거나 기업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N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 직장의 취업규칙과 내규를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회사에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신고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N잡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운·오프라인 쇼핑물을 운영하며 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프리랜서·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며 3.3% 원천징수 후 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정 관리도 능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N잡러에게 ‘효율적인 일정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래처 요청에 대응하고, 제각각인 마감 기한을 체크하는 동시에 회계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면 멘탈을 어느새 가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소득은 별로 없고 ‘일과 삶의 균형’은 저기 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N잡을 할 때는, 우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업무에 맞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효율을 높여보세요.

업무 효율 높여주는 프로그램

노션(Notion)

한 페이지에서 할 일, 일정, 파일 공유, 커뮤니케이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업툴. 기존의 방식을 깨고 100% 효율 중심의 시스템 구성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EverNote)

텍스트, 그림, 사진 또는 저장된 웹 콘텐츠를 활용해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1세대 메모 프로그램으로 오랜 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콜라비(Collabee)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으로 최근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협업툴. 메모와 일정 관리는 물론, 기업용 메신저까지 제공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N잡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기획하는 사람이죠"

뮤지션 하림



뮤지션 하림에게 N잡은 생존에 앞서 선택입니다. 하나의 방식으로 만족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는 무기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N잡을 쌓아온 뮤지션 하림이 N잡러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Q _ 음악계 대표 N잡러로 활동하시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하림입니다. 음악계 N잡러를 대표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수도 하고 있고, 월드뮤직 공연을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요. 활동하는 밴드도 꽤 많아요. 음악도 만들고 기획자로서 여러 사회, 문화 관련된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강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가수 분들보다는 뭔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N잡러로 소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Q _ 요즘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N잡은 무엇인가요?

제게 '주로 어떤 일'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특별히 어느 하나에 비중 두는 것은 없고요. 많은 분이 저를 가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 삶에서 가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공연이 있을 때만 가수죠. 평소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나가고 시즌이 시작될 때면 기획하거나 심사를 하죠. 날씨가 좋아지면 공연이 많아지고 지방으로 다니기도 하고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엔 음악을 만드는 전문 프로듀서가 되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게 ‘주로 어떤 일’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특별히 어느 하나에 비중 두는
것은 없고요. 많은 분이 저를 가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 삶에서 가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공연이 있을 때만 가수죠.

**Q _ 최근 SNS를 통해 보니 지방 공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
습니다.**

맞아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보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 나오죠. 이것도 사실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SNS를 통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N잡러는 자신이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계속 바뀌니까요. 저 같은 N잡러
에겐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활용돼요.

**Q _ 하시는 일이 너무 많거나 넘칠 때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특히 기획하는 일들이 좀 그래요. 문화기획 같은 경우
는 일종의 ‘꿈 꾸는 일’이죠.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들을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뭔가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을



크게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죠 (웃음). 처음 생각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몇 번 이 과정을 겪고 나니 나름 룰 같은 게 생겼어요.

Q _ 어떤 물이요?

실패하고 난 후까지 예상을 하거나, 내 마음에 계속 끊임없이 물어요. 지치지 않았는지, 정말 괜찮은지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할 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독이며 여러 일들을 하고 있죠.

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로 잠깐 쉬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공연하는 일을 기획한 '국경 없는 음악회'를 3년 정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전날 공연이 있거나 스케줄이 많은 날은 정말 몸을 떼기

힘들어요. 장비도 제가 혼자 다 들고 가거든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하는 별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제 음악으로 희망을 가지니까 지속할 수 있었어요.

Q _ 2011년 정도부터 다양한 일을 해오셨으니, 어쩌면 N잡러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N잡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전시 기획이나 공연을 만들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공간을 빌려서 예술가들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웃음). 그런데 하나만 하거나 혹은 남들이 만들어 준 판에서 놀기만 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일하고 승진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음악을 하고 가수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할지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기획하며 갈등이 좀 해소됐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실패를 최소화하며 내가 원하는 것에 최대한 근접해가는 과정들을 습득하게 됐어요.

Q _ 얼마 전엔 오랜만에 대면 공연도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다던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는 뭐 그런 드라마틱한 감정은 없어요. 예술가라는 게 ‘인생의 꿈이고 이상’일 때,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같이 휘청거린다는 것을 습득했거든요. 그런데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따로 존재하게 돼요. ‘공연이 잘 돼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워요’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순간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일을 일답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좀 더 단단해지더군요. 공연이 잘 되면 행복하냐고요? 저는 화분에 물 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공연이 잘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Q _ N잡러로 살아가는 다른 뮤지션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주변 친구들이나 예술가 중에 N잡러가 꽤 많아요. 특히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친구도 많아요. 가족이나 친지가 소개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은 음악을 놓지 않아요.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죠. 마음이 아프지만 속상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음반을 만드는데 동화책 형식으로도 내고 싶다며 사운드 북 제작을 공부하더니 어느 날엔 중국의 공장에 전화해야 한다고 중국어를 배우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하면서 영상 일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상 중계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영상 중계 전문가가 돼 있기도 하죠. 모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다만 이 친구들은 모두 음악을 놓지 않고, 그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음악의 본질이 스스로 즐기고 위안받고, 그 위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계속 기억하는 한 음악을 놓을 일은 없죠.

그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N잡을 하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잡을 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니터링하길 바라요.



**Q _ 그들에게, 그리고 N잡러로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단지 안 됐다, 힘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N잡러로 살아가는 게 단지 돈 때문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것을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건 다른 이유거든요. 돈의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들 맘속으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N잡을 하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잡을 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니터링하길 바라요.

Q _ N잡러 하림이 추천하는 휴식 방법이 있다면요?

N잡러로 살다 보면 제대로 쉬는 순간이 부족해요. 좀 쉬려면 또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니깐요. 저 역시 겪어봤죠. 그래서 전 어느 순간 일정표에 휴식을 넣어요. 빨강고 굵은 글자로요. 스케줄을 잡듯 휴식이라는 시간을 넣어놔요. 그 시간에 의식적으로 쉬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하거나 환기를 시키고 정리를 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저 멍하게 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 운동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의 방법으로 꼭 휴식하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N잡러로 활동할 수 있어요!



**N잡러 하림이 추천하는
N잡러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 ♪ 시작하는 N잡러를 위해
- ♪ 벌려놓은 일이 감당이 안 될 때
- ♪ 방향을 고민하는 N잡러를 위해
- ♪ 바라던 성과를 낸 N잡러를 위해

N잡러가 N잡러에게 전하는 속 깊은 노래들!
하림이 각기 다른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들려주는
'N잡러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www.youtube.com/moelkorea)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즐거로운 N잡생활

N잡러라면 보통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일들을 병행하지요.

N잡러이라면 꼭 기억해둬야할 고용노동부 정책과

N잡 발굴 및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쓰고, 고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공무원, 사립 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특수고용종사자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가능!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①퇴사일 기준 18개월 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②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③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④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 **비자발적 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도산&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IT직종 프리랜서라도 일하다가 다쳤다면, 바로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종사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정보기술분야 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N잡을 발굴해 보세요!

N잡러 상당수는 본인의 취미를 프리랜서 직업으로 연결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직업으로 삼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나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훈련비의 최소 45%에서 최대 85%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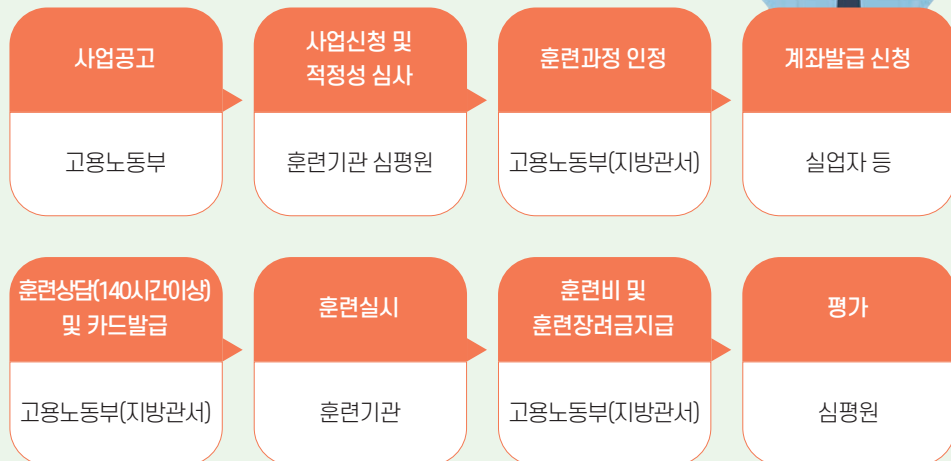
또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 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역시 특별 훈련수당 제외하고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체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N잡러 청년들 주목!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구직자 또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데요. 재직자의 경우 약 3주 내외로 최대 40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채용예정자는 5개월 이내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개별 산업현장의 특화된 훈련 수요대응을 위해 NCS 적용 비율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며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 청년층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공동훈련센터에 대해 훈련비(실비)를 지원합니다.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도 계좌 잔액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인프라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공동훈련센터에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이 지원됩니다.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1:1 매칭된 사업단 9개소 선정 (2021년 1월 기준)**

	산업 분야	사업단	
		산업별 협·단체*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1	정보기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훈련원
2	관광·레저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3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주대학교
4	스마트공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ISC)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5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ISC)	홍익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6	금형, 금속가공 등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뿌리ISC)	한국산업기술협회
7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	정보통신	한국인공지능협회	폴리텍 정수캠퍼스
9	정보기술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IT교육재단

*산업별 협·단체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별 협·단체에서 실시한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업하고 △기업과 협약체결 △교육훈련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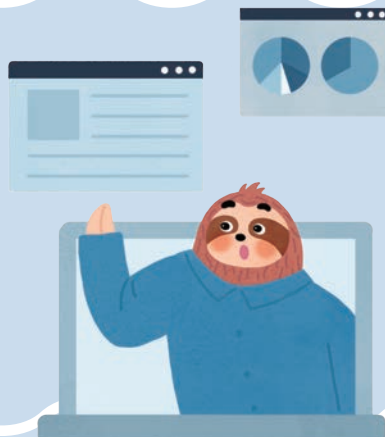




Chapter 2

내일로

부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N잡이든 아니든

우리는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내 일을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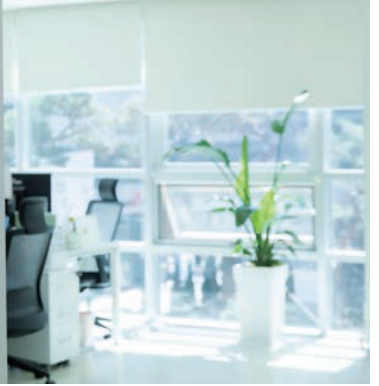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끝없는 자기계발로 연마하는 단단한 인생

이용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 취업컨설턴트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0여 년간 금융권의 직장인으로 성실한 인생을 살던 이용태 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과 취업방향 설정에 매진합니다. 직업상담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은 그를 또다른 방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노력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용태 씨에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 취업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이런 비싼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을
거예요. 약 4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겐 목돈이죠.
혼자 했다면 힘든 일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나라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은 퇴직 후에도 무척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55세에 꽃 피우는 새로운 인생

1987년 국민은행에 입사한 이용태 씨는 28년간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점주권 개인 주요 고객에 대한 고객 상담, 개인영업과 마케팅, 재무 및 금융상품 상담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했습니다. KB국민은행 수원, 안산, 분당 지역에서 개인 영업 팀장, 고객관리 팀장 등을 역임한 그는 55세 퇴직 이후에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통상 은행에선 퇴직 후 5년 이내 재채용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이용태 씨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하기로 한 것이죠. 2015년 은퇴한 이 씨는 이후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액티브시니어 과정과 송실대 평생교육원 생애설계코칭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디지털대학 상담심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해 지난해 졸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알게 됐습니다. 인지어스 평생교육원에서 전직지원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생애설계지원 컨설팅 향상과정까지 수료했지요. 이후 생애경력설계사 1급, 전직지원컨설턴트 1급, SDU 상담심리사 2급 과정까지 수료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이런 비싼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을 거예요. 약 4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겐 목돈이죠. 혼자 했다면 힘든 일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나라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은 퇴직 후에도 무척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저 역시 인생의 2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인생 2막을 돕는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지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만들어낸 커리어 그리고 가능성

전직지원 전문가로서 일련의 직업훈련과정을 거친 이용태 씨는 2018년 한국 GM 군산 공장 희망퇴직자 2천여 명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재취업, 창업, 생애설계 등 전직지원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주관 청년장병 진로도움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소속 건설일자리팀 전임으로 근무하며 숙련건설 기능인력 건설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기관 관리 및 훈련생 취업지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상담센터에 근무하며 중기복무자 및 장기복무자 그리고 전역 예정 간부에 대한 경력상담 및 전직지원 컨설팅으로 전직지원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에서 오랫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중기 복무자 및 장기 복무자 간부들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인생 2막의 멋진 새 출발을 돕기 위한 조력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인생의 2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인생 2막을 돕는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지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고요.”

구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감 고취와 장점 발굴이라는 것을 이용태 씨는 본인의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잡 컴퍼스, MBTI, 한국형애니어그램, 커리어앵커, 직업선호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장점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자신감을 회복하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용태 씨는 한국재무설계사 인증, 직업상담실무자과정, 한국형애니어그램 교육수로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술한 구직과 노력 그 사이에서도 자격증 도전을 멈추지 않은 배경엔 사회활동가로서 75세까지 건강한 현역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의 인생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 2모작 성공으로 노인 일자리에 기여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금융 분야를 거쳐 강사, 컨설팅, 기획, 상담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요가와 불교 및 한문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몸이 열 개만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어 살아갑니다. 인생의 2막은 인맥의 폭을 넓히면서 사회활동가로서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용태 씨는 “바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집중할 땐 집중하지만, 쉴 땐 확실하게 쉬기 때문이죠. 휴식을 취할 때는 시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려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 65세부터 머물 장소, 인맥 지도 등을 만들며 자신을 다잡습니다.

지금 이용태 씨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의 취업컨설팅으로 있습니다. 구직자로서의 축적된 그의 경험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보건복



지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그를 이끌어 준 것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노인의 빈곤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돕게 되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이라는 미션과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자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설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제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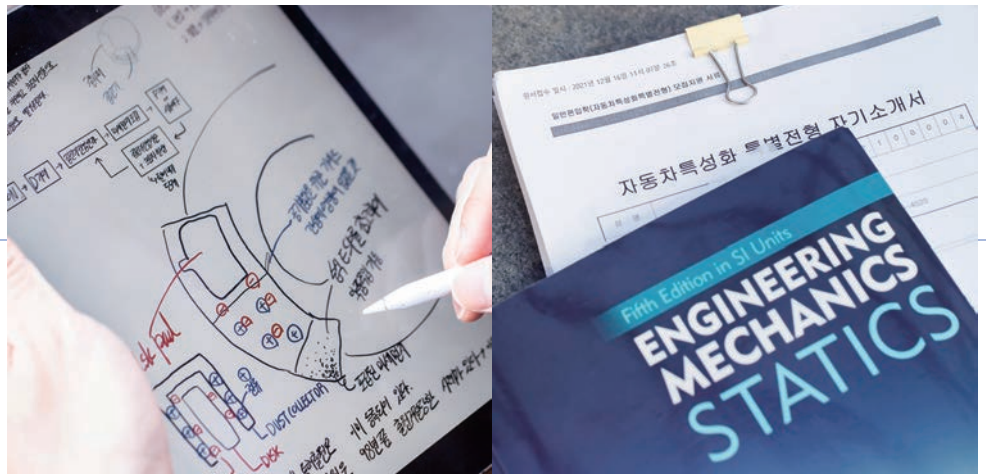
제가 경험해 본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었습니다. 인생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방향이 맞게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가 있다면 수정도 해야 합니다. 만다라트맵이나 썬크와이즈맵 등을 활용해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 맵들을 항상 책장에 붙여 놓고 복기하곤 하죠. 큰 도움이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앞둔 시니어는 그간 걸어온 인생의 지혜를 모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이 꾸는 청년다운 꿈 오늘 그리고 내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재욱 씨



전문대 졸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기술 습득, 기업 취업, 4년제 대학 편입학. 버라이어티한 길을 걸어온 김재욱 씨의 나이는 고작 스물여섯입니다. 그럼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며 목표가 뚜렷한 그는 분명한 꿈을 위해 부지런히도 움직입니다. 청년다움이 무엇인지 그를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재욱 씨를 만났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김재욱 씨에게 선물한 것들
 지역 소재 전문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전공한 김재욱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좀 더 큰 세상에 나가 자신을 증명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당장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선두에서 직접 자동차를 제작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연구개발직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재욱 씨는 편입학과 야간대학 등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던 중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정평가형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비와 시험응시에 필요한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석률에 따라 교통비와 식비까지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재욱 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낮설게만 느껴지던 과정평가형 제도가 취준생이었던 그에게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정은 NCS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D, 3D CAD 뿐만 아니라 정밀측정과 기계제작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6개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평가형 제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기초설계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은 연구개발직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나에게 좋은 기회이자 기계분야를 꿈꾸는 취준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전향하기로 했다면
진짜 전공자만큼의 지식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실습 예제를 집에서 반복해서
더 열심히 복습했더니 처음에
하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점차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2020년 봄,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곧 경쟁력, 특히 개발까지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교육은 오토캐드(AutoCAD)와 인벤터(Inventor) 설계를 이용한 기계설계에 3D프린터 교육까지 실무 중심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6개월간 약 2~3주에 한 번씩 과정평가 시험을 응시해야 하고, 최종평가 시험에서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고강도 교육이었죠. 이 과정에서 수강생의 1/3은 떨어질 만큼 힘든 과정을 김재욱 씨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수업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 독학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내/외부 평가점수를 합산해 80점을 넘겨야 합니다. 높은 허들에 6개월간 쪽잠을 자며 공부하고 학습한 김재욱 씨는 평가를 거치며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주기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와 개인 상담을

통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2D 캐드의 기초부터 3D 캐드 응용기술까지 많은 것을 배운 6개월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학원도 많죠. 하지만 함께하는 공부는 확실히 질이 달랐습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선생님의 피드백도 수준 높았습니다.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과정이수 중 김재욱 씨는 본인만의 특허까지 개발해 냅니다. 3D 프린터 작동 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를 에어커튼과 집진기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개인 특허출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계설계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자격으로 취득한 김재욱 씨는 곧 구급차와 캠핑차량 등의 특징차 제조기업에 취업하게 됩니다. 공부를 통해 성취하고 취업에 성공한 그는 일하며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자동차를 조립해 만드는 것보다 더 고난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진 것이죠.



“공학 지식이 곧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볼트를 조이고 푸는 일은 더 이상 경쟁력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4년제 대학 편입학을 결정했어요. 인공지능 융합이 트렌드인만큼 기계공학과를 선택하게 됐죠. 기계를 설계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맞는 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심도 깊은 공학 지식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선택과 도전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울산에서 올라와 지금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한 김재욱 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갓 1달이 지났습니다. 직장인에서 학생으로 바뀐 신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있지만, 재욱 씨는 본인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는 게 좌우명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있

다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학력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학점을 딸 생각으로 편입학한 건 아니니까요. 본질적인 역량을 길러 대학에서 실력을 증명받고 싶어요. 학생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처럼 수준 높은 학생이 많아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재욱 씨의 다변화는 스스로 찾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욱 씨는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우수한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동자에게는 이에 맞는 기술을 배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겪어본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사회가 주는 완벽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업이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기도 하죠. 제도 자체가 정립이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좋아요. 산업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돼 다양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TIP.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현장실무 중심의 NCS 기반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전문적인 평가를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처음 시행됐으며 매년 신규 종목이 추가돼 2022년 현재는 자동차, 제빵, 회계 등 무려 167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죠. 기술 습득으로 자격을 갖추고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이수자들의 성취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와 변화를 읽는 현명한 혁신 기업

(주)이너스커뮤니티

스타트업을 방불케 하는 젊고 활기찬 분위기와 달리
이너스커뮤니티의 연혁은 22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최초 기혼여성 커뮤니티를 론칭하고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이너스커뮤니티는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SS등급을 최근 이뤄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자리한
이너스커뮤니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기혼여성이 소비의 한 축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케팅은 남성과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타겟팅 되어왔어요. 국내 최초 여성커뮤니티 플랫폼인 ‘아줌마닷컴’을 만들며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죠.



22년간 쌓아온라인 마케팅 기술

지난 2000년 1월 2일, 밀레니얼 시대를 열며 첫 삽을 뜬 이너스커뮤니티는 국내 온라인광고 1세대 기업입니다. 당시 32세던 황인영 대표는 본인과 같은 기혼여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기혼여성이 소비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 하던 발상이었지요. 지금은 기혼여성이 소비의 한 축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케팅은 남성과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타겟팅 되어왔어요. 국내 최초 여성커뮤니티 플랫폼인 ‘아줌마닷컴’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죠. 그 결과 소비자의 역할과 참여가치를 높여 광고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기혼여성이 주축이 되는 마케팅 방식을 일구었어요.”

현재 이너스커뮤니티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데 있어 참여형 마케팅,

경험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과 커뮤니케이션 틀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체 플랫폼에서 만든 소스와 자력으로 개발한 노하우가 바탕이 됐죠.

소비자 인사이트에 근거한 광고전략으로 500건 이상의 브랜드 캠페인, 공공캠페인을 만들어냈고 이는 ‘신제품의 성공적 론칭’에서부터 ‘장기적 브랜드의 성장’, 그리고 ‘위기에 있는 브랜드를 소비자와 함께 극복해내는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커뮤니케이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캠페인의 성과를 높이고 효과를 트래킹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문성을 기르기도 했죠. 소비자와 기업, 공공이 함께 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기획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과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10여 년간 오뚜기를 비롯해 도드람 한돈, 삼성 래미안, 대한제분 등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목표를 정하고 기간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했죠.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으며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에 도전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임원이 먼저 제안한 근무혁신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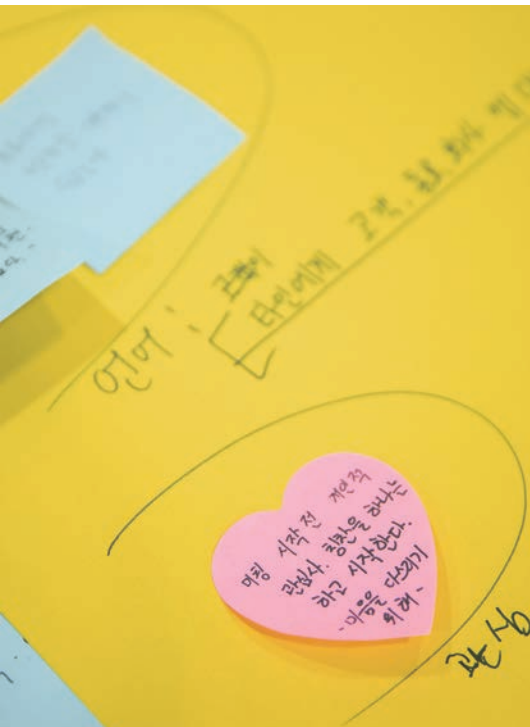
야근이 많은 광고회사의 특성상 이너스커
뮤니티의 직원들도 많은 야근에 시달렸습
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황인영 대표
는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을 주기 위
해 “초과 근무를 줄이자”, “연차를 자유롭
게 사용하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자”
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잘 실천되지 않았죠. 클라이언트
의 요청과 일정에 맞추려면 지키기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리더들과 의논 후 3개
월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전사적 목표를 정하고 기간 내 근

무 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했죠.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으며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에 도전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된 조직문
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에는 반신반의했던 리더나 직원들도 시간
이 갈수록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고 스스로 마무리할 수
없는 일은 리더들이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이나 초과근로 감축을
비롯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실행했고 연차 사전계획제도, 조
기퇴근제, 샌드위치데이 공동연차, 연차축
진제 시행 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



려 노력했습니다. 또 그룹웨어를 통한 결재 간소화, 비대면 근로계약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했고 CEO와의 티타임, 팀간 소통 활성화, 성과급 지급 등의 근무혁신 제도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개월 뒤 이너스커뮤니티는 SS 등급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료들의 쌍방향 소통으로 유연한 기업

“누구든 대표가 될 수 있어요.”
황인영 대표의 이 한마디엔 이너스커뮤니티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SS등급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노

사가 아니라 동료가 되는 관계를 청사진으로 그리는 황인영 대표는 경영진이 조직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영’을 맡은 사람들이 일 뿐이고 동료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료애’를 기반으로 신뢰가 생겨야 하고 그것이 쌓이면 서로 두려움 없이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덕분에 이너스커뮤니티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서울형 강소기업에 인증됐고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채용해 인재육성형기업 선정됐습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동료들, 애자일한 조직구조의 개편과 부서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일하기에 도전하는데 서슴없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이너스커뮤니티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 안에서 배움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월 단위로 동료들과 목표의 달성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목적을 잡는 OKR 파티는 이너스커뮤니티만의 독특한 노사문화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월례회를 없애고 파티처럼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이야기

를 나누는 즐거운 경험을 나눕니다.

이너스는 사업 초기 ‘아줌마가 행복한 세상만들기’를 사명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기혼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사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와 산업은 변해가는데 사명도 재정비해야 하니까요.

“이제 2022년 이너스의 새로운 사명을 함께 출발한 좀 더 젊은 동료들과 새롭게 재정비하려 합니다. 고객들의 갈망이 바뀐 만큼 내부 동료들의 세대교체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의 고객을 다시 재정의하고 지금의 동료들이 새롭게 쓰는 이너스의 사명과 비전이 앞으로 이너스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SS등급이란?

일과 생활이 균형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데요. SS등급은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취득한 기업만 선정될 정도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MZ세대가 꿈꾸는 사회적 기업의 청사진

마인즈그라운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성장을 일군 마인즈그라운드는 민환기 대표를 비롯해 열다섯 명의 직원이 모두 20대입니다. 젊은 시각과 가치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마인즈그라운드를 찾아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가 양질의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했고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만들자는 결론에 다다랐죠.

다문화가정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마인즈그라운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사업부인 마인즈스튜디오가 메인 사업군으로, 생중계와 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기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원웨이 프로세스로 구축했습니다.

2019년 12월 문을 연 마인즈그라운드의 첫 발자국은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포부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학습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진로 교육이나 맞춤 입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기관에 공급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쉬운 입시 교육, 쉬운 소통 교육과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채웠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민환기 대표의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다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좋

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가 양질의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했고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만들자는 결론에 다다랐죠.”

덕분에 처음 영상은 민환기 대표가 직접 강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절묘하게 창업과 동시에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자연스레 비대면 교육이 떠오르면서 교육 콘텐츠를 미디어화하는 역량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돼 창업 300 유망팀 인증을 받은 마인즈그라운드는 전문대학교 다문화드림클래스 위탁운영과 다문화 교육포털 ‘모두캠퍼스’ 런칭 및 다문화기관 영업 확장을 이어갑니다.

성장을 위한 선택과 취약계층 취업 지원

이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직원이 뚝뚝 뭉쳐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생산해냈



지만, 사업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기업의 생존 앞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교육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1년여 간 교육과 영상을 병행했습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직원들의 다짐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사의 성장과 지속력이 있어야 가치도 이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부터 마인즈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9월 론칭한 마인즈스튜디오는 자체 장비와 전문 기술로 온라인 세미나와 행사, 미팅 등을 진행하고 행사 기획과 무대 연출을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전문 중계팀은 자체 인력, 자체장비로 사고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짧지만 탄탄하게 쌓인 노하우로 안정적인 라이브커머스 송출 서비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인즈그라운드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소명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에 주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현재

마인즈그라운드 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5명이 취약계층입니다.”

2020년 10월 예시사회적기업 인증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뒤 2021년 11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은 마인즈그라운드는 2021년 12월 삼성전자를 비롯한 50개 기관과 협력 관계를 달성합니다. 지난 2월에는 영상제작사 매칭 플랫폼인 ‘미디어 핏’을 신사업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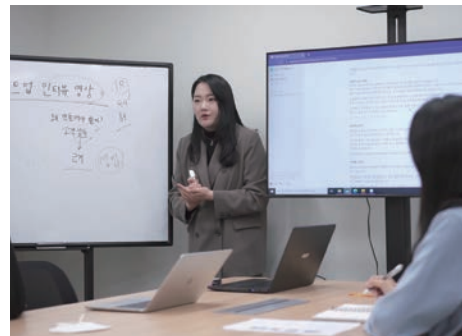
직원이 원하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

마인즈그라운드가 2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업계에서 단단히 자리 잡기에 민환기 대표의 노력이 컸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사회기반시스템공학을 전공하고 SK행복나눔재단 루키 프로젝트에서 경희대학교 회장직을 맡은 민환기 대표는 대학 재학 중 유통회사인 시프를 창업해 일찌감치 비즈니스 시장에 뛰어듭니다. 카이스트에서 SVIP과정을 밟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진로·창업교육 발전TF위원인 민환기 대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사업 확장의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초심을 생각합니다.

“시장이 큰 영상 사업의 분야를 마인즈그라운드의 기반 사업으로 잡은 것은 결국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초심에

시장이 큰 영상 사업의 분야를 마인즈그라운드의 기반 사업으로 잡은 것은 결국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초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성이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업가가 사명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중심이 없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의 배경을 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민환기 대표가 이끄는 마인즈그라운드 경영 철학은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직원이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임원이 되고 싶다면 언제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물론 2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민환기 대표의 기준이 조금

높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따라올 의향이 있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동시에 일반 직원들에게는 철저한 워라벨을 지켜줍니다. 편하게 일하고 싶은 직원들 또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조직원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려는 것이 민환기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덕분에 2년 4개월간 마인즈그라운드의 퇴사자는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청년취약계층 중심으로 취업을 돕고 있지만, 회사가 확장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Tip.

스타트업의 복지는 거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모두 제공하지만, 마인즈그라운드는 매월 한 번씩 의무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환기 대표는 이 워크숍을 계속 치열하게 일하고 성장하느라 지친 직원들의 정서를 매달 주기적으로 매듭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직원 개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듣고 삶과 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MOEL News

1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에 충격을 받는 기업·재직자를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용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 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선정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지원 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선정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받은 사업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 요건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월과 2월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지난 3월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 총 254건 위반,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천만 원 부과

구분	전체 (위반건수)	사법조치 (위반건수)	과태료	
			위반건수	과태료(천원)
계	254	67	187	371,258
원청	137	67	770	204,608
하청	156	39	117	163,650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 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도 관련해서도 12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후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습니다.

*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하청	합계
①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1-1.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18	20	38
1-2.안전교육(근로자교육, 직무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15	40	55
1-3.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	-	12
1-4.기타(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 보고 등)	25	57	82
②직접적 안전조치			
2-1.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방지조치 등	59	32	59
2-2.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6	6	6
2-3. 작업계획서	1	1	1
③도급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순회점검, 대피훈련 등)	1	-	1
총계	137	156	254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필요

△ 주요 점검사항: 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②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③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④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⑤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⑥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직업병 안심센터 1호가 개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충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 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에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도 전했습니다.



4

K-디지털 트레이닝, 314개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2일 36개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연간 1,980명 양성 규모)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간의 선정 결과를 더할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약 2만 7,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314개 훈련과정(145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공모의 결과발표는 신속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1·2차 심사로 나눠 진행했는데요. 1차는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및 디지털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월 말 45개 과정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중공업,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코드스테이츠, 엘리스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들의 신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2차 심사에서는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에 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성균관대학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총 33개 기관의 36개 과정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 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5일부터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통합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하반기 공모 역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통합공모로,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신규 훈련유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과정도 동시에 심사, 선정할 예정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유형

- 1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 2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훈련생의 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 3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KT의 에이블 스쿨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 4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

5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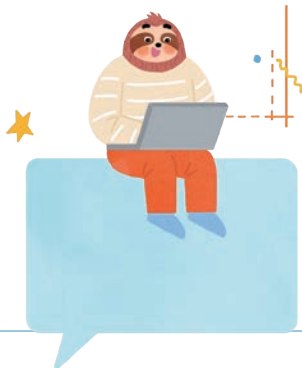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등

* 퇴직연금 도입률: 30명 미만 24.0%, 30-299명 77.9%, 300인 이상 90.8%

*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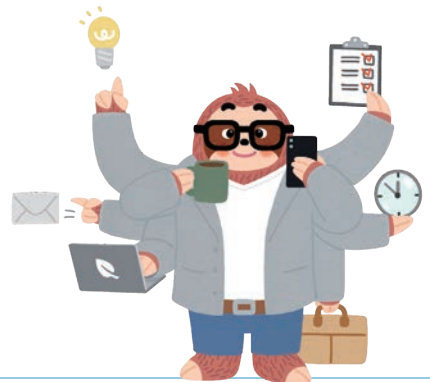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참여 가능하고, 사업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를 깨닫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 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6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①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③(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 1:1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6개 모듈로 구성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①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②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③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④ (지역특화) 위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강원도 3개/ 충청도 4개/ 전라도 3개/ 경상도 5개/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 인천시는 6월 부터 신청(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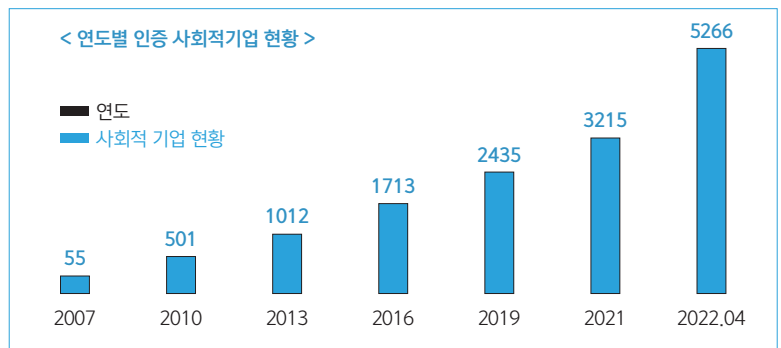
* ('21년도) 목표 5,000명, 참여기관 14개 → ('22년도) 목표 7,000명, 참여기관 28개

*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은 워크넷(www.work.go.kr/고용복지정책)을 통해 확인 가능

8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82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총 3,26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총 6만 2,669명이며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 6,889명으로 58.9%에 달하게 됩니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차지하고, 그 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이 15.4%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연도	취약계층 고용(명)	사회적기업 총 고용(명)
2007	1403	2539
2010	8227	13443
2013	14179	23919
2016	23858	39195
2019	30073	49063
2021	36605	61877
2022,04	36889	62669

이번 '22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이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는 해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자리제공형(66.5%), 사회서비스제공형(7.3%), 지역사회공헌형(8.1%), 일자리·사회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혼합형(6.2%), 기타(창의·혁신)형(11.9%)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하고 싶은 걸 다하기 위해 전진

아무리 바빠도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챙길 여유가 없지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당신에게
핵심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최근 국민의 날씨 가이드,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매운맛 사내 연애’의 새로운 획을 긋기도 했죠. 밤낮없이 예측하고 예보하는 사람들의 맵고 진한 이야기 <기상청 사람들>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애인인 상사가 말합니다 “니가 가라, 제주도”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진하경 과장과 이시우 특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우 특보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로 인한 가정사 그리고 비혼주의까지 얹히며 갈등에 휘말립니다. 때 마침 태풍이 올라올 시기가 되자 총괄팀원 중 한 명을 제주 태풍센터로 파견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죠. 진하경 과장은 이시우 특보에게 “니가 가라, 제주 태풍 센터.”라고 명령합니다. “진심이냐”고 묻는 이시우 특보에게 “공적인 업무를 쉽게 결정하진 않아”라고 답하죠. “그 말은 이미 결정을 내렸단 뜻이네요”라는 의미심장한 이시우의 말에 “응, 너만 괜찮다면.”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하기 어려운 발령을 받았나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서나 출장지로의 발령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어길 시 원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시키며 발령지 불복종에 대한 보복성 처사로 느껴 지기도 하죠.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소이동 및 업무변경,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 없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동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민원 24에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 다친 그대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제주 태풍 센터로 내려간 이시우 특보는 점점 복상하는 태풍에 업무에 집중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태풍 경로 예측을 하기 위해선 존데를 띄워 관측하기로 하죠. 존데는 전파를 이용한 기상 관측 기계의 하나로 대기 상층의 기상 상태나 대기 중의 자외선 등을 관측해 작은 무선 송신기로 지상에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존데 안에 가스를 채워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이시우 특보는 눈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서울에 있던 진하경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펍펍 울며 제주도로 급히 내려오죠. 위급한 상황을 넘겼지만 이시우 특보의 아버지는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잠깐!

업무 중 다쳤어도 걱정 마세요!

업무를 하다 상해를 입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여성 과장은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마, 아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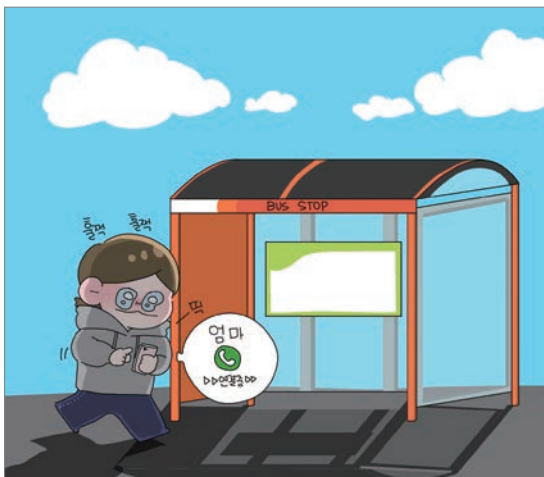
이시우 특보와 또다시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진하경 과장은 이시우 특보가 비혼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진하경 과장의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특히 기상청 입사 시절 7급 동기들 중 수석이자 차기 과장감이던 오 주임님이 결혼과 두 번의 육아휴직을 겪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진하경 과장은 많은 생각을 하죠. 육아와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에 지친 오 주임님이 끝내 실수하게 됩니다. 오 주임님이 진하경 과장에게 “과장님은 결혼하지 마요”라며 말하는 장면은 여성의 회사 생활에서 결혼과 육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아빠, 육아 휴직 다녀오세요!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때려야 뗄 수 없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죠.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엔 아빠 육아 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육아휴직 중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도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육아 휴직이 아닌, 아빠 육아 휴직하세요!







현금 자리 대신할 디지털화폐의 시대

Digital

최근 몇 년간 디지털화폐가 금융계의 큰 화두입니다. 국내에서도 한동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고, 누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전자화폐가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한국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 실험의 성공을 알리면서 디지털 경제 체제의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점차 실물화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디지털화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등이 바로 암호화폐에 속하죠. 실제 돈과 가치가 연동되는 전자화폐나 가상화폐와는 달리 암호화폐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호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에 디지털 통화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복제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어 기존 장부에 체인 형태로 연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강력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역시 실물 없이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결제 수단입니다. 다만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기업이며, 발행 기업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A 쇼핑몰의 쿠폰을 B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와 달리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내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에는 게임 머니, 인터넷 쿠폰, 모바일 쿠폰, 싸이월드 도토리 등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발행 규모는 발행 주체인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단어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란 실물이 아닌 정보 형태로 전자기기에 저장된 돈을 말합니다. 온라인 결제수단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혹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전자화폐는 디지털화폐 중에서도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화폐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현금이나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의 교환을 보장합니다. 전자화폐에 내 계좌를 연결해두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1만 원으로 실제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으며, 현금을 네이버페이를 충전해두거나 네이버페이를 다시 계좌로 송금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해 다른 복제품과 차별성을 갖는 토큰을 말합니다. 주로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됩니다. 복제가 불가능한 진품임을 보증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인 셈이죠.

NFT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주소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것이든 NFT로 제작 가능하며, 디지털 파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이라 합니다. NFT의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똑같은 코인이 2,000만 개가량 발행되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 값이 있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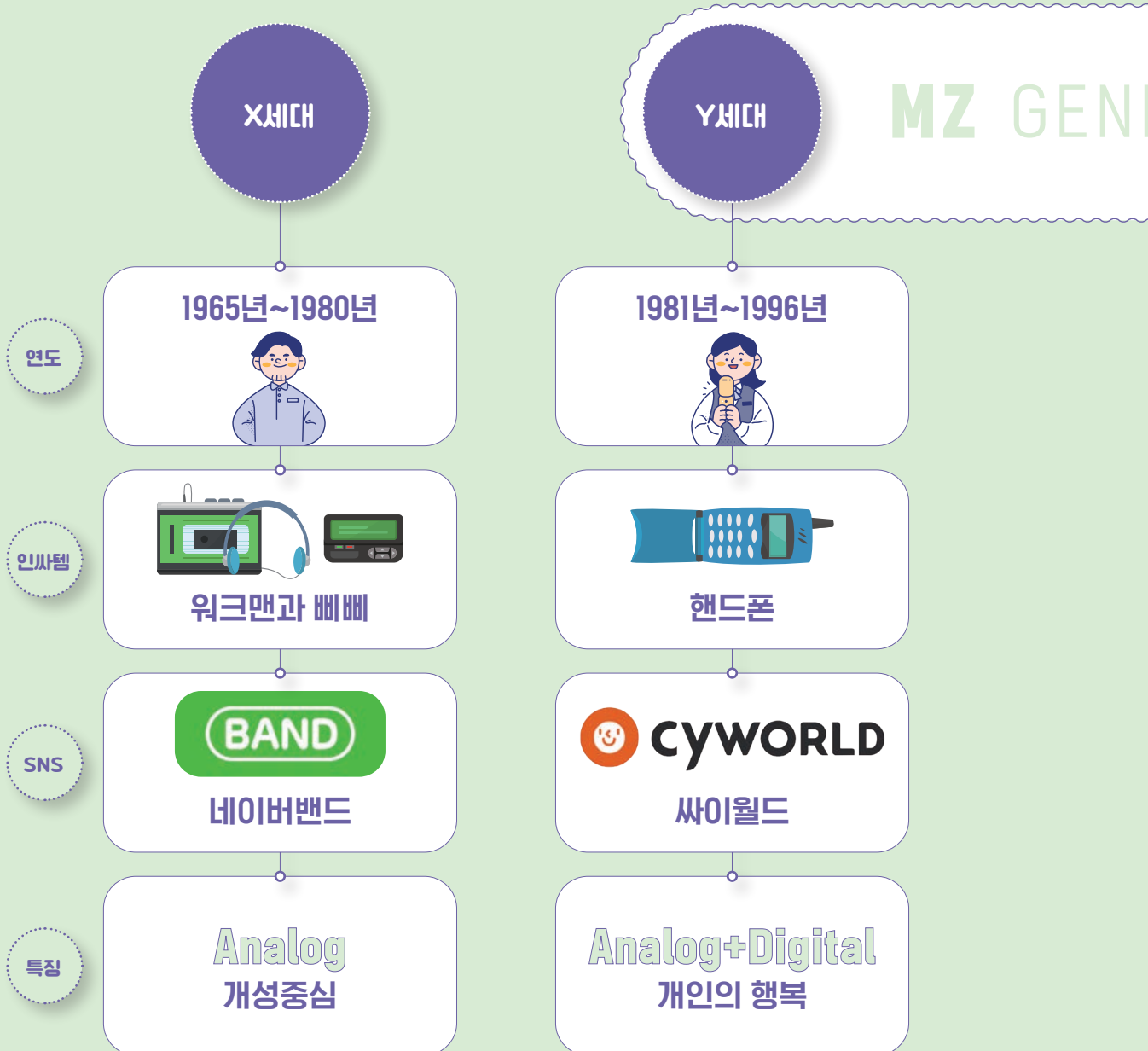


최근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그 성격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시간으로 큰 가격변동이 이뤄지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의 거래 내역은 모두 블록에 기록되므로 탈세나 자금세탁 등 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난 및 분실의 우려도 적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보면 세대가 보인다는데… “나는 무슨 세대지?”

X세대, Y세대, Z세대… 세대를 아우르는 단어들이네요. 이러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세대통합은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세대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가요?



MZ GENI

여기서 잠깐! 요즘 세대, MZ세대는 누구야?

최근 영향력있는 세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MZ세대는 Y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포함되면서 세대의 범위가 광범위해 '젊은 세대, 요즘 젊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은 SNS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고요.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덜한 편이에요. 아울러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NERATION

Z세대

1997년~2010년



최신 스마트폰,패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Digital Native
안정성과 실용성

알파세대 (Generation Alpha)

2011년 이후



AI



틱톡, 제페토

Born to be Digital
직관적인 만족감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을 고민하느라 분주해지곤 합니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뭐니뭐니 해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닐까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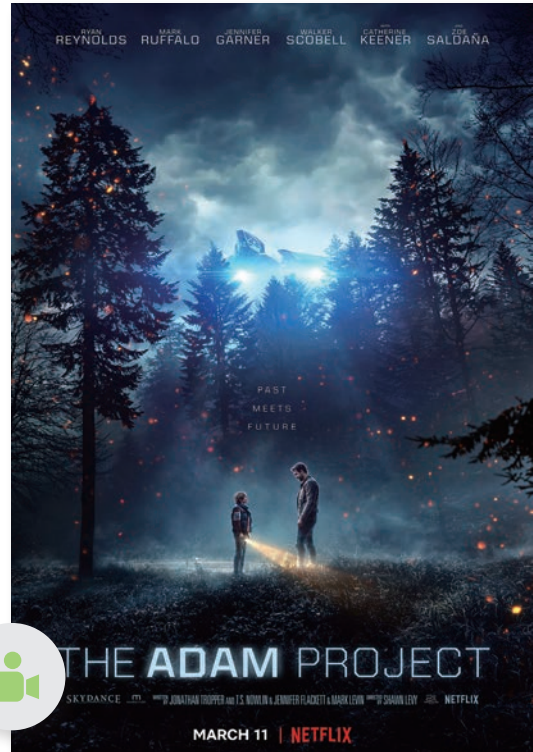
5월에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문화 나들이



유쾌하고 따뜻한 가족 코미디

영화 <어부바>

가정의 달을 맞아 웃음과 감동이 함께 있는 가족 영화 한 편이 개봉합니다. 배우 정준호가 주연을 맡은 <어부바>인데요. 부산 어느 해안가의 작은 포구마을, 어선 '어부바호'의 선장인 종범은 아내와 사별 후 늦둥이 아들을 키우며 철없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해프닝들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가장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어부바호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 <어부바>는 이들 가족이 아픔과 갈등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2년에 출시할 시간여행자

영화 <애덤 프로젝트>

지난 3월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애덤 프로젝트>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스토리에 따뜻한 가족애를 함께 담은 SF 작품입니다. 2050년이란 먼 미래로부터 시간여행 중이던 전투기 한 대가 2022년에 출시합니다. 전투기의 조종사 애덤 리드는 2018년으로 사라진 아내를 찾는 중이죠. 출시할 과거에서 그는 당시 12살이던 자신을 만납니다. 한 마디도 지지 않는 성격이 현재의 자신과 꼭 닮은 어린 애덤. 영화는 두 애덤 리드가 한 팀이 되어 미래를 구하러 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페인트>

자아와 주관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자신과 함께 살 부모를 면접을 통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상상력으로 시작하는 소설 <페인트>는 좋은 부모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청소년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130여 명의 초·중·고교생으로 꾸려진 청소년심사단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열일곱 살의 주인공 제누가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이 원하는 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소설 속 면접 현장으로 떠나 볼까요?



익명의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

책 <아버지에게 갔었어>

신경숙의 장편소설 <아버지에게 갔었어>는 가족의 나이 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사고로 딸을 잃은 주인공은 그 뼈아픈 상실을 계기로 처음 아버지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아버지를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죠. 소설 속 아버지란 인물의 삶 안에는 한국전쟁부터 80년대 시위까지 근 70년의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주인공 '나'는 비로소 아버지와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준 특별한 미션

책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오베라는 남자>를 쓴 프레드릭 배크만의 소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는 할머니와 엄마, 손녀라는 여성 삼대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곱 살 소녀 엘사는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해 친구도 없고 어른들에게도 미움받기 일쑤입니다. 그런 엘사를 당당하게 자라게 하는 유일한 지원군은 할머니죠. 소설은 일곱 살 엘사의 눈을 통해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고 스스로 용서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꿈꿔야 한다

책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어린이 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뉴베리상에서 아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1980년대 미국 델라웨어주에 사는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어 비판하는 첫째, 현실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둘째, 최초의 여성 우주선 사령관을 꿈꾸는 모범생이지만 자신이 늘 투명인간 같다고 느끼는 셋째. 이 세 남매의 모습은 현재의 10대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소설은 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풀어가는 모습과 함께 이 과정에서 가족이란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려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특별기획
키즈 페스타 in POHANG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키즈 페스타 in POHANG'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간 총 3편의 공연으로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상상력극장 삼양동화 <헨젤과 새엄마>, <거울을 깬 왕비>는 고전 원작을 뒤집은 스토리로 세상에 맞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창작인형극 <파란토끼 룰루>는 차이와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알사탕>은 재치 있는 대사와 따뜻한 감성으로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2.4.30~5.29 |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시청 대강홀



온 도시가 마음으로 물들다
춘천마임축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2년 동안 중단됐던 춘천마임축제가 'We will rock you!'라는 미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물론, 도시의 침묵과 관계를, 춘천의 숲과 하늘을 모두 흔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축제의 막을 여는 록앤록 프로그램은 춘천의 관광명소와 도심 거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 열리는 도깨비 난장에서는 마임, 서커스, 파이어웍,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2022.5.22~5.29 | 춘천시 전역



모래로 만나는 세계여행
2022년 해운대 모래축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에 모래로 만든 특별한 조각 작품이 전시됩니다. 올해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 작가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국내 모래 작가 3명이 에펠탑, 피라미드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표현한 15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막일에는 해상에서 10분가량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축제에는 샌드보드와 어린이 모래 놀이터,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대회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2022.5.20~5.23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 일원



거리를 수놓는 경쾌한 몸짓들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매년 5월이면 안산의 곳곳을 무대 삼아 거리극을 선보이는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이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축제는 '범 내려온다'로 큰 사랑을 받은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100명의 시민이 함께한 프로젝트로 막을 올립니다. 공식 참가작으로는 마리오네트 인형의 섬세한 움직임과 다양한 악기의 조화가 돋보이는 보따리극의 '할머니의 호호밴드', 지난해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멜랑콜리댄스컴퍼니의 '위버멘쉬' 등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2022.5.5~5.8 | 안산문화광장



멸종 위기 동물들을 만나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포토아크, 너의 이름은>

전시 <포토아크, 너의 이름은>은 130여 년간 지구를 탐험하고 기록해 온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전입니다. '동물들을 위한 생명의 방주'라는 의미를 내포한 포토아크는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사람들에게 지구가 마주한 위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촬영된 1만 2000여 종의 생명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진전입니다.

2022.4.12~9.12. | 북서울꿈의숲 상상특목미술관



유머와 풍자가 있는 캐리커처 전시

전시 <아트만두의 인간대백과사전>

풍자와 유머를 바탕으로 시사적 주제를 다루는 만화를 '시사만화'라고 하죠. 한국만화박물관은 시사만화가 중에서도 '캐리커처'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아트만두 최재용 작가의 작품을 전시 중입니다. 대중들에게 희로애락을 주었던 이슈의 주인공들을 아트만두 작가의 촌철살인 시사 캐리커처로 만나보세요. 시사만화가 주는 풍자의 카타르시스와 캐리커처가 선사하는 시각적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22.3.15~5.29 | 한국만화박물관



난해한 개념미술을 친근하게

전시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展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개념미술의 선구자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전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원화전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82세를 맞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예술 인생을 총망라한 회고전입니다. 그의 1970년대 초기작부터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2022년 최신작까지 회화, 설치, 디지털미디어, 드로잉, 판화 등 150여 점의 원화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개념미술의 세계로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2022.4.8~8.28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지구 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전시 <나와 고래의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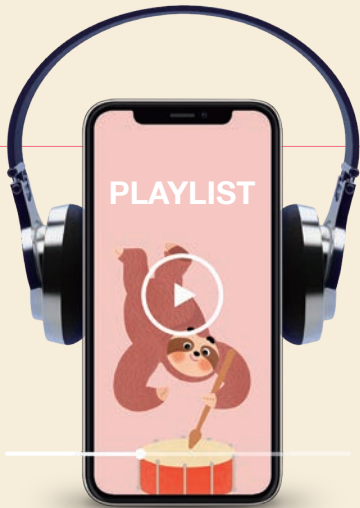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구에게 코로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환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고래의 지구>전은 지구 위 여러 존재와의 공존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어린이의 시선에 맞춰 풀어낸 생태 전시입니다. 미술 작품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했어요. 희귀동물 연구와 보존에 힘쓰고 있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다양한 작가 및 디자이너팀이 참여해 영상, 회화, 설치 등 11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2021.10.19~2022.6.26 |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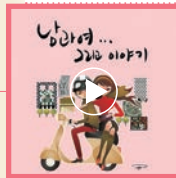
사랑에 빠진 나, 너에게 '러브송' ▶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은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입니다.

옆자리 동료도, 뒷자리 선배도, 앞자리 후배도 모두 사랑에 빠졌나봅니다. 얼굴이 아주 꽃처럼 피었네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월간내일의 러브송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무려 남녀 듀엣곡!



1.



노리플라이, 타루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급하게 다가가는 건 노노~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서 사랑을
쟁취하세요!

2.



이한철, 박새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5월은 진짜 사랑의 계절이죠.
푹푹하고 청량한 사랑의 감성에
봄내음까지 더한 이 노래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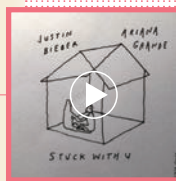
3.



에릭남, CHEEZE '사랑인가요'

듣고 있으면 정말 '사랑'이란 게
정말 쉽고 평화롭기만 할 것만 같고
죽었던 연애세포도 몽글몽글
깨워주는 찐러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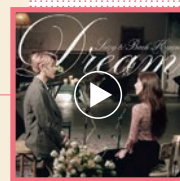
4.



Justin bieber, Ariana Grande 'Stuck with you'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난 니 곁에~
두 사람의 목소리의 화음에
빠져보세요~

5.



백현(EXO), 수지 'DREAM'

김이나 작사가가 풀어낸 달달한
사랑을 청아한 수지와 달콤한
백현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진짜 꿀이야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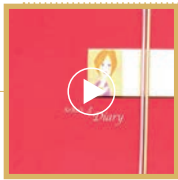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6월의 주제는 '회사지박령, 야그너를 위한 힘내송'입니다. 월간내일 웹진 이벤트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웹진을 통해 추천해준 러브송 플레이리스트.
 숨은 명곡들을 정말 많이 소개해줬어요 :)
 노래를 하나씩 찾아듣는 재미까지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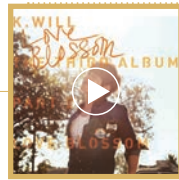
1.



이소라
‘첫사랑’

첫사랑에 대한 수줍음과 설렘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가사도 너무 사랑스럽죠 :)
 이하나님 추천곡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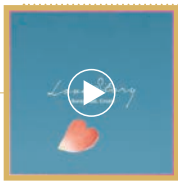


케이윌
‘Love Blossom’

러브송의 최강자! 케이윌 노래가
 빠지면 섭하죠. 봄처럼 설레는
 사랑이 찾아올 것만 같은
 러브 블라썸 같이 들어요~
 김로사님 추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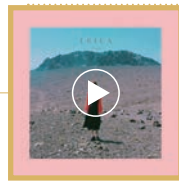
3.



수란
‘Love Story’

우연히 찾아온 사랑의 설렘.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로맨틱~
 선희정님 추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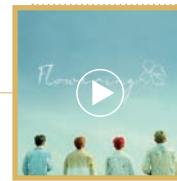
4.



프롬
‘서로의 조각’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이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닐까요? 상대의 빈틈을 내가
 채워주고, 그는 나의 빈틈을
 채워주고!
 박보미님 추천곡

5.



루시
‘개화’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어쩔 이렇게 찰떡같이
 표현했을까요?
 손은정님 추천곡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제 그만!

함께 실천해요! 용기내 챌린지!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중 47%가 포장재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COVID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2회 배달 음식을 먹을 경우

1년 간 1,300개, 10.8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 포장에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100% 재활용도 안 된다는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시켜먹지 맙시다'라고 할 순 없으니

배달 시킬 땐 배달앱에서 일회용품 받지 않기 체크!

가까운 거리는 배달 대신 포장, 포장할 땐 다회용기 챙기기!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지만 5월에는 일회용품 그만, 용기내 챌린지를 늘봄이랑 함께 실천해보세요!

5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근로자의 날	2	3	4	5 어린이날 	6	7
8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9	10 바다식목일	11	12	13	14
15 스승의 날 / 4.15	16	17	18	19	20	21 부부의 날
22	23	24	25 지구를 위해 용기내 주세요!	26	27	28
29	30	31 바다의 날 				



5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5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5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MZ세대

배달라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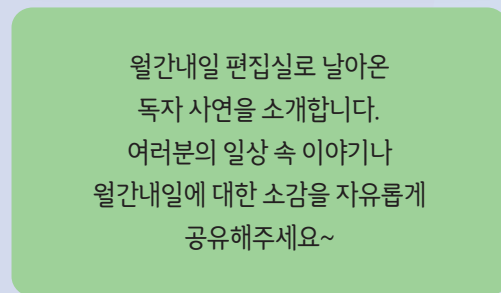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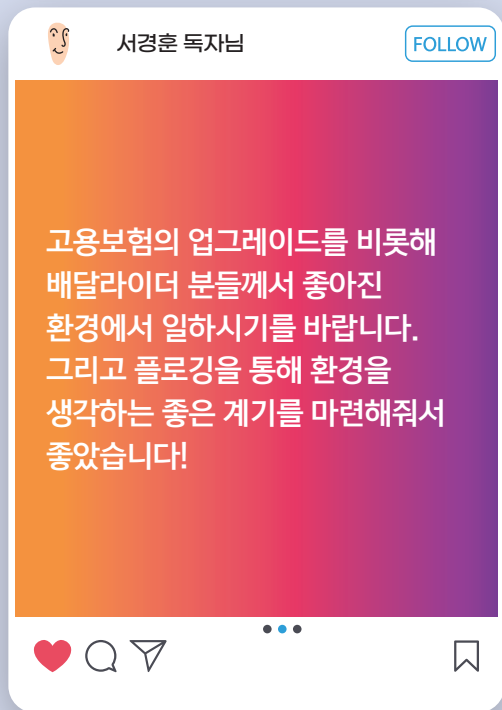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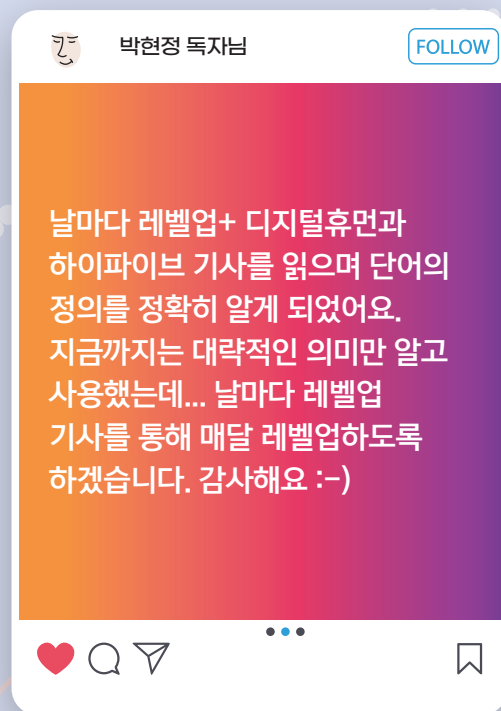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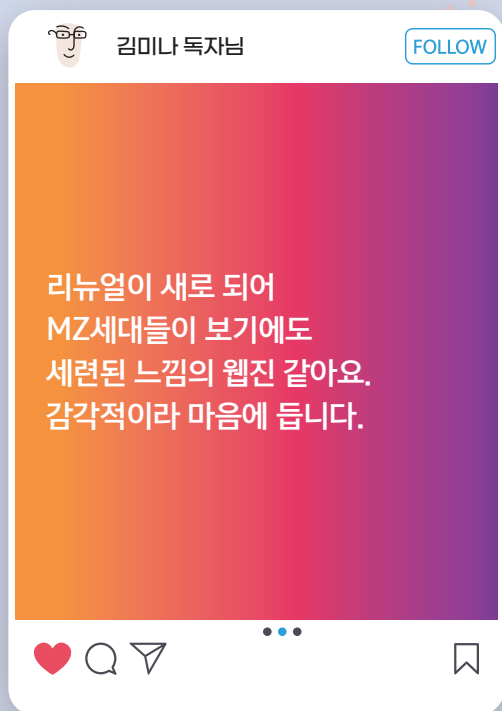
REVIEW



하이파이브

5월호 그린리추얼 용기내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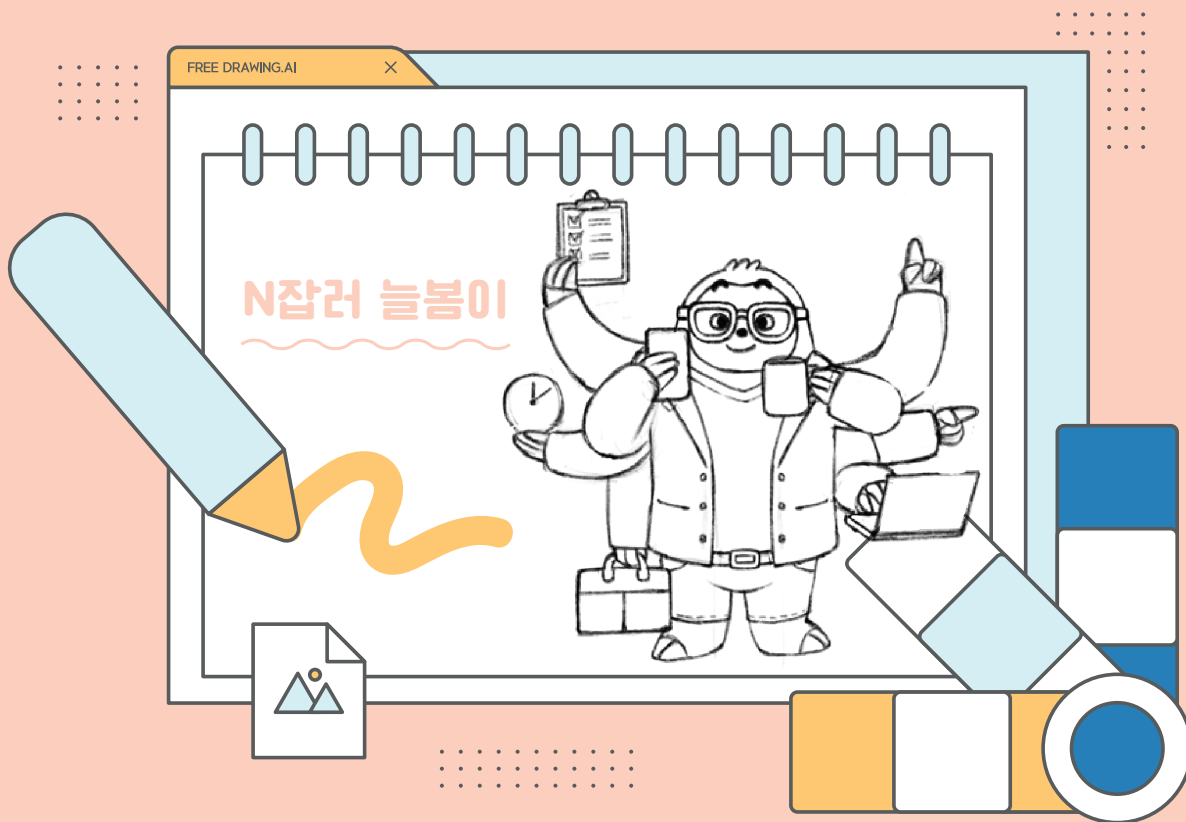
6월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주제
'아근하는 동료에게' 추천하는 #힘내송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주세요.



EVENT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N잡러 늘봄이 컬러링

<월간내일>의 마스코트, 늘봄이가 N잡러로 변신했습니다.
N잡러 늘봄이에게 멋있게 컬러를 입혀주신 후 카톡폴친으로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5월 2일~5월 20일 / **당첨자발표:** 6월 4일 개별발표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4월 이벤트 당첨자

이영화(0583) 주현희(6716) 장호선(2883) 한민영(5268) 김종진(3103) 문지은(0604) 이정하(7808)
이은지(9688) 천경이(1582) 윤혜지(8169) 정한진(6091) 이지현(6213) 이정예(8274) 서경훈(8374)
선지은(3201) 김수진(8061) 황상규(9237) 전해영(9699) 송지현(2491) 박병삼(8311)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8기 모집

대한민국의 SW를 이끌
청년들을 찾습니다



모집 요강

대 상 만 29세 이하 (*92.7.1 이후 출생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2.8월), 전공무관
현재 미취업자 대상

모집기간 2022년 5월 2일 - 5월 16일

교육기간 2022년 7월 - 2023년 6월

교육장소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

지원내용

- **실전형 SW 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교육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 캠퍼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부 훈련 장려금 추가 지급 가능
- 우수교육생 연수 기회부여, 교육중 삼성SW테스트 응시

기 타

- 교육기간 중 통학 가능한 자(별도 숙소 제공 없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부산) 캠퍼스 지원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K-digital Training 수강가능자 우대

교육 과정

기본과정 ▶ **1차 Job Fair**
5개월 ▶ 1개월
- 코딩 중심교육

심화과정 ▶ **2차 Job Fair**
5개월 ▶ 1개월
- 프로젝트 실습 중심

모집 프로세스

STEP.01 지원서 접수 ▶ STEP.02 SW적성진단
STEP.03 Interview ▶ STEP.04 교육시작

* SW 적성진단은 지원서상 선택한 전공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
- SW 전공 : 기초 코딩 테스트
(Python, Java, C/C++ 중 사용 가능한 언어 선택)
- SW비전공 : 수리/추리논리력 진단
Computational Thinking 진단

※ 본 교육과정은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합니다. (교육운영은 멀티캠퍼스에 위탁 실시)

www.SSAFY.com

SSAFY@ssafy.com 02-3429-5100 hellossafy hellossafy hellossafy SSAFY



고용노동부

SAMSUNG



아이들과미래재단
KIDS & FUTURE FOUNDATION

